

공무원 시험 준비와 합격: 대학 서열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배한나^a · 최재성^b

공무원 시험은 응시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의 초기 노동 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다. 본 연구는 청년층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을 중심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자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출신 대학의 위세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공무원 시험 준비 여부, 준비 방법, 합격률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분석 결과 대학 입학 당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고,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확률은 낮았다. 출신 대학의 위세가 높을수록 졸업생들의 9급 공무원 시험 참여 비중은 낮으나, 최근 위세가 높은 대학 졸업자들의 시험 준비 비중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시험 합격 여부는 출신 대학 특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만,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는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대졸자와 명문대 졸업생들의 9급 공무원 시험 참여 증가 현상은 기존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지방 소재 대학 졸업자들과 고졸 응시생들의 합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공무원 선발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시험 준비 과정에서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공무원 시험, 학교 위세, 사회경제적 배경, 시험 준비, 합격,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a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박사과정

b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조교수. Email: jaesungc@skku.edu

I. 서론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실업자는 135만 명에 달하며 청년실업률은 12%에 육박한다(통계청, 2017).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은 취업에 성공하기 위하여 어학성적, 공모전, 자격증을 비롯한 다양한 ‘스펙’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도 경제적 배경에 따른 기회의 격차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명확한 선발기준, 안정적인 근로조건과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20대 청년층의 3.2%에 해당하는 208,084명이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이하 공채)에 지원하였다. 이는 해당 시험 전체 출원 인원의 63.8%를 차지한다. 전 모집 단위를 통합하여 산출한 2016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59.8대 1이었고, 경쟁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407대 1에 달할 정도로 치열했다. 이러한 극심한 경쟁률은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공무원 열풍 현상을 보여준다.

청년층에서 관찰되는 공무원 열풍 현상은 여러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 대학생과 대졸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갖춘 고급 인력들이 치열한 경쟁 구조 하에서 장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 축적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2016년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통계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합격자가 전체의 9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 명문대 출신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인터뷰 기사가 소개되고 있으며 상위권 대학 출신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증가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증가는 시험 관리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2013년 9급 공무원 시험 관리 비용은 직전 연도인 2012년 대비 10억원 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27%에 육박하는 9급 공무원 시험 결시율은 불필요한 관리 비용의 지출을 수반한다. 주원·오준범(2017)은 공무원 시험 열풍으로 한국 사회가 감당하는 순기회비용이 명목 국민총생산(GDP)의 1.1%인 17조 1,42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청년층에게 나타나는 공무원 준비 열풍은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까지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보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보다는 일찌감치 공무원 시험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고등학생과 학부모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의 9급 국가공무원 시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0대 지원자의 수는 1,083명이었지만 최근 2년 동안은 매해 3,000명이 넘는 10대 지원자들이 9급 공채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청년층이 마주한 노동시장의 어려운 현실이 고등학생들의 진로 선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통계들은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공무원 열풍 현상이 보다 폭넓은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고민을 요구하는 중요한 현안임을 시사한다.

공무원 시험은 응시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의 초기 노동 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특성은 어떠한지, 시험을 준비하는 지원자 중에서 시험에 합격하는 이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엄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험 준비 기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시험 준비 과정과 합격 여부에 출신 가정의 경제적 배경의 역할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청년층이 직면한 노동시장의 열악한 상황은 그 동안 고등고시, 대기업과 공공기업을 준비하던 상위권 대학 출신들이 7급이나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유인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불평등,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는가'라는 결과의 불평등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출신 대학에 따른 차이에 주목한다. 먼저 공무원 시험 열풍이 대졸자 가운데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추이는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정리한다. 이를 위하여 <대졸자직업이동경로 조사> 8개년도 자료를 분석한다. 우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여부 그리고 최종 합격 여부와 관련된 요인들을 검토하고, 조사 대상자의 실제 출신 대학명을 활용하여 시험 준비 여부, 준비 방법, 그리고 합격률에 학교의 위세(명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최근 등장한 상위권 대학 출신자의 공무원 시험 참여 현황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합격자 구성의 변화 및 그 함의를 논의한다.

II. 선행연구

각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공무원 시험’의 범주에는 차이가 있지만, 크게는 협의적 의미와 광의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협의적 의미의 공무원 시험은 5·7·8·9·10급 선발 시험을 포함한다. 광의적 의미의 공무원 시험은 여기에 임용시험, 공기업 및 공단 시험을 추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협의적 의미의 공무원 시험을 채택한 연구로 9급 공무원에 한정하여 시험 준비생의 진로 선택 진행 과정을 살펴본 정연순(2010)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대학생의 5·7·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준비 현황과 시험 준비가 응시자의 대학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룬 오호영 외(2005)가 있다. 광의적 의미의 공무원 시험을 채택한 연구에는 박성재·송민수(2010), 김태일(2011), 이상호(2015), 정근하(2015)가 있다. 정근하(2015)는 7·9급 공무원 시험과 임용고시를 공무원 시험으로 분류하였고, 김태일(2011)은 임용고시, 공기업 시험을 공무원 시험의 범위로 규정한다. 박성재·송민수(2010)는 좀 더 포괄적으로 고등고시(행정, 사법, 외무, 기술고시)와 7·9급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공사·공단 시험 총 7가지 시험을 공무원 시험에 포함하였으며, 이상호(2015)는 공무원 시험, 공단 및 공사 시험뿐만 아니라 전문자격 시험 준비생들까지 고시생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공무원 시험의 범위를 5·7·9급 시험으로 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절의 변수 설명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청년층의 공무원 시험 준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이 초기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오호영(2006)은 514명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임금함수를 추정하여 장기간에 걸친 공무원 시험 준비가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박성재·송민수(2010)는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한 분석을 진행하여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최초 구직에 성공할 확률이 낮고, 취직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긴 것을 밝혔다. 김태일(2011)은 2006년에 조사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05GOMS)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4년제 대학 졸업생을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 여부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취업, 보수 및 직업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경험은 학교 재학 기간을 늘리고, 취업 시점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공공부문 시험 준비 경험은 임금과 직업만족도에 부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호(2015)는 2011년에 실시된 2010GOMS 1차 조사 및 그로부터 2년 후 실시된 3차 조사 자료를 연결하여 고시 준비 경험과 노동 시장 성과 사

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 또한 취업 준비 기간, 첫 직장의 직무만족도, 그리고 월평균 근로소득에 고시준비 경험이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확인된다.

최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 특히 명문대 출신의 증가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출신 학교의 위세에 따라 시험 준비 양상과 합격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양상과 출신 대학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로는 오호영(2006), 박성재·송민수(2010), 이상호(2015)가 있다. 오호영(2006)은 6학기 이상 수료한 4년제 대학생 606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는 지방 대학 재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향이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박성재·송민수(2010)는 성별, 출신 대학 유형 및 소재 권역에 따라 시험 시작 시기, 준비 기간, 초기 노동시장 이행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자는 고등고시를 준비하는 경향이 높고, 지방 소재 대학 졸업자와 여성의 경우에는 7·9급 공무원 시험 준비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인다. 이상호(2015) 또한 출신 대학 특성과 시험 준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이 연구에서도 4년제, 국공립, 서울 소재 대학교 졸업생들의 고시 준비 비율이 높고 합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무원 준비 경험과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관한 양적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 이외에도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응시자의 심리적 측면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정근하(2015)는 오랜 기간 수험 생활을 한 장수생들의 사회적 연계가 단절되어 가는 것에 주목하며 과열된 공무원 시험이 수험생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다룬다. 5년 이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장수생들을 인터뷰하여 이들의 생활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고시를 오랫동안 준비한 이들이 경험하는 대인 관계 단절 과정은 노숙인과 상당한 유사함을 보인다. 또한,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겪는 사회적 연결망의 결여 및 부재 현상과 동일 집단 사이에서 재제휴(reaffiliation)되는 과정은 사회적 자본의 감소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객관성이 결여된 편향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증대되어 결과적으로 수험 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오찬호(2016)는 각기 다른 이유로 노량진에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청년, 정년 퇴직자 등 다양한 연령층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배경과 삶의 이력을 가지고 수험생이 되기로 결심하였지만 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선택한 공통된 계기는 결국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현실적 이유임을 지적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공무원 시험'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비판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문제의식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후에 축적된 실증 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련 문헌에 기여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자료의 한계로 단년도 자료만을 활용하였거나, 2년의 간격을 두고 동일 코호트를 두 차례 추적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8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추이를 살펴보고 장기적인 변화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응답자의 출신 대학명을 활용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학의 국공립 여부와 5가지 권역(서울, 경인, 충청, 영남, 호남권)으로 구분된 소재지 정보를 사용하여 학교를 유형화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 체계를 따르면 서울에 있는 모든 사립대학은 같은 그룹으로 묶이게 된다. 대학 입시에서 드러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명확한 선호 체계와 견고한 한국 대학의 서열 구조를 고려할 때, 이전 분류 방식을 따르는 경우 같은 그룹에 속하는 학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응답자의 실제 졸업 대학명을 활용한 본 연구는 공무원 시험 준비 결정 요인 및 합격 여부와 대학 위세 사이의 관계에 대해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는다.

III. 자료

1. 자료의 구축 및 분석 대상 설정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9급 공무원의 구성과 채용 시험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자. 9급 공무원은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담당 정책의 집행 및 실무 전반을 책임지는 행정 주무관으로 정의된다. 응시 연령을 만 20세로 규정하는 교정 및 보호직을 제외하면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9급 공무원 시험에 지원할 수 있다. 소속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국가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지방직 공무원에 응시할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응시 자격이 충족되나, 국가직 및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거주지에 상관 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행정, 회계, 세무, 관세, 일반기계, 전기, 일반농업, 보건, 일반토목, 우정 총 10개의 직렬이 대표적이며, 교정직 등 소속 기관에 따라 세부적인 직렬이 존재한다. 현재 9급 공무원 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가 대상인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로 구성된다.

공무원 열풍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인구학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와 더불어 준비한 시험 종류 및 소요 기간 등 각종 시험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를 활용한다. GOMS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년도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사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9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주관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0GOMS까지는 동일한 응답자에 대해 2005GOMS는 세 차례, 2007GOMS부터 2010GOMS까지는 두 차례 조사가 이루어지는 패널 조사로 진행되었으나, 2011GOMS부터는 횡단면 조사로 형식이 변경되었다. 해당 조사는 대학 입학 당시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 경험, 노동시장 이행 준비 관련 변수뿐만 아니라 대학 재학 기간부터 조사 시점까지 응답자가 준비한 공무원, 공단, 교원임용 시험과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 시험에 대한 풍부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2006년 8월, 2007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2007GOMS부터 가장 최근에 공개된 2014GOMS까지 총 8개년도 1차년도 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2005GOMS 조사에서 시험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항에서 7급과 9급 공무원이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되어 조사되었기에 9급 공무원 시험에 초점을 맞추는 본 연구는 2007GOMS 조사부터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시험 준비 경험 문항은 시험 준비에 할애한 기간이 긴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응답하도록 구성되며, 조사 대상자의 응시 여부, 준비 동기 및 기간, 응시 횟수, 준비 방법, 소요 비용, 최종 합격 여부 및 현재 준비 여부에 대하여 묻고 있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선정하였다. 우선 대학 졸업 후 직업 탐색 과정을 고려할 때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살펴보는 연구의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교육대학교와 네 개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졸업자를 제외하였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의학, 치의학, 약학, 한의학, 간호학과가 포함된 의학교열 전공자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학 모집 정원의 절반 이상을 특정 종교 관련 학과에 배정하는 14개 대학교의 졸업자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30세 이상의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한 이들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조사 시점 당시 만 30세 이상인 응답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1차 조사 당시 만 20세 이상 29세 이하의 4년제 대학 졸업자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면 8개년도에 걸쳐 총 84,733명이 남는다.

2. 변수 설명 및 기초 통계

본 연구에서 전체 공무원 시험은 5·7·9급 시험을 의미하며, 공무원 시험 경험자는 해당 시험에 한 번이라도 응시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지칭한다. 분석에서는 급수가 다른 공무원 시험에 각각 준비해본 경우 각 시험별로 독립된 경험을 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응답자가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을 지닌 경우 해당 응답자는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자로 분류되며, 급수별로 살펴보면 7급 유경험자인 동시에 9급 시험 유경험자에 해당된다. 5·7·9급 시험 준비 경험자가 전체 응답자의 10.74%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8·10급 시험 경험자는 전체의 0.23%에 불과하다. 8급과 10급 시험은 시험의 성격이 통상의 7급이나 9급 채용 직위와는 다르다고 판단하여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 연구는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 및 공무원 시험 합격 여부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에 사용한 종속변수는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 여부와 최종 합격 여부이며, 설명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개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조사 참여자의 성별, 조사시점 당시 만 나이, 전공계열, 졸업 평점이 고려되었다. 성별 더미 변수는 응답자가 남성이면 0, 여성의 경우 1의 값을 갖도록 설정하였고, GOMS에서 제공하는 응답자의 조사시점 당시 만 나이를 사용하였다. 대학에서의 전공은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예체능계열로 분류한 GOMS의 전공 대계열 변수를 사용하였다. 졸업 평점 변수는 대학에 따라 평점 체계가 4.0, 4.3, 4.5로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각 응시자의 학점을 졸업 학교의 평점 체계에 맞추어 100점으로 표준화한 후 4.5점 만점 체계로 재변환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사회경제적 배경 관련 변인으로 대학 입학 당시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부모의 학력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GOMS는 입학 당시와 조사 시점 당시 부모의 월평균 소득 변수를 제공한다. 대학 입학 당시 소득 변수가 응답자의 시험 준비 과정 사회경제적 배경을 반영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GOMS에서 대학 입학 당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소득없음,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700만원 미만, 7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9가지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변수를 6점 척도(200만원 미만=1, 200~299만원=2, 300~399만원=3, 400~499만원=4, 500~699만원=5, 700만원 이상=6)의 범주형 변수로 재구성하여 사용한다. 소득없음 항목은 전체 응답의 0.97%, 100만원 미만은 1.7%, 1000만원 이상은 4.1%에 해당하는데, 해당 변수를 최대 6가지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분석에 이용할 경우 소득 최저, 최고치 응답

비중이 12.7%, 9.4%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향후 결과 해석과 하위집단 분석에서의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변수를 재구성하여 사용한다. GOMS에서 응답자 부모의 학력 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초급대), 대학, 대학원 총 7단계로 조사되며 각 교육 과정의 수료 여부를 더불어 묻고 있다. 분석을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변수를 사용하여 교육 수준을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 양친의 학력 수준이 모두 조사된 경우 학력 수준이 더 높은 쪽을 택하였으며, 한 쪽 부모의 정보만 기입된 경우는 해당 측정값을 부모의 교육 수준 변수로 사용하였다.

공무원 시험 준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GOMS의 시험 준비 경험 여부, 월평균 준비 비용, 시험 준비 시기, 준비 방법, 최종 합격 여부, 현재 시험 준비 계속 여부 문항 응답을 이용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GOMS의 응답자는 경험한 시험 종류에 대해 최대 세 가지로 응답이 가능하다. 9급 공무원 시험 경험 여부 변수는 해당 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1, 한 번의 준비 경험도 없을 경우 0을 부여하여 생성한 더미변수다. 5·7·9급 각각의 시험 경험 여부에 대한 세 변수 중 하나라도 1의 값을 지니는 경우 전체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자로 분류하는 더미변수 또한 구축하여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시험 준비 당시 월평균 비용은 10만원을 단위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GOMS는 응답자의 9급 시험 준비 기간을 연도 및 개월수가 기록된 실제 준비 기간 문항과 시작 및 종료 시점을 각각 연, 월을 기록하는 전체 준비 기간 두 가지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전자의 경우 2008GOMS, 후자는 2014GOMS에서 조사 문항으로 포함되지 않아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사용하는 변수에 따라 특정 1개년도 자료는 누락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을 지닌다. 분석에는 실질 준비 기간 보다 전체 준비 기간이 상술된 변수를 이용할 경우 시험 최초 준비시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4GOMS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전자의 방식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 준비시기를 6개월 단위로 1부터 6까지 '30개월 초과'까지 6단계로 구분된 범주형 변수를 구축하여 시험 준비 기간 변수로 분석에서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최초로 시험 준비를 시작한 시기를 입학 전, 재학 중, 졸업 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시험 준비 시기 변수를 구축하였다. 9급 공무원 시험에 여러 차례 준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들의 경우 시험의 시작 시기가 가장 빠른 시험을 기준으로 해당 변수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응답자의 출신 대학 유형 변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응답자의 출신 대학을 B그룹, 서울 소재 대학, 지방 소재 국공립, 지방 소재 사립대 총 네 가지로 학교 유형을 분류하여 범주형 변수를 생성한다.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를 묶은 6개 대학을 A그룹, 해당 6개 대학에

경희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를 추가한 총 11개 대학을 B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서울 소재 대학은 B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을 의미하며, 서울을 제외한 시도에 소재한 대학의 경우 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분류하였다. B그룹은 11개, 서울 소재 대학은 29개, 지방 소재 국공립은 30개, 지방 소재 사립대 항목은 129개의 대학으로 구성된다.

기초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시험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준비한 시험은 9급 공무원 시험으로 최종 분석 대상의 8%가 해당 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선발 인원이 전체 공무원 시험 중 가장 많고, 5·7급 선발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9급 시험 준비자 비율이 높았으며, 전체 여성 응답자의 8.6%가 해당 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해당 시험 응시 준비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 유형은 4년제 지방 소재 국공립으로 평균적으로 졸업자의 12.1%가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시험 준비 경험자의 평균 졸업 평점은 4.5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3.62점이며, 평균 준비 기간은 약 20개월이었다. 전년도 자료에서 시험 준비를 시작한 만 나이 변동이 없었던 남성에 비해 여성은 2007GOMS 조사 당시 평균 22.7세였지만 8년 후 2014GOMS자료에서는 23.2세로 0.5세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추이는 학교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학교 위세가 높은 B유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23~24세 전후에 머물렀던 평균 최초 준비 만 나이가 2014년에는 25.1세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최초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시기를 입학 전, 재학 중, 졸업 후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2012GOMS부터 졸업 후 처음으로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인원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험 기간 동안 11개 대학 B그룹 졸업자의 9급 시험 합격률은 39.5%로 가장 높았다. 출신 학교의 위세에 따라 4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해당 수치를 살펴본 결과 평균 합격률은 B그룹(40%), 서울 소재 대학(25.9%), 지방 소재 국공립대(25.3%), 지방 소재 사립대(16.3%) 순이었다. 모든 조사 연도에서 지방 소재 사립대학 졸업자들의 합격률이 가장 낮았다. 최초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이 대학 재학 기간에 해당하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도 모든 조사 시점에서 B그룹 대학 졸업자들의 해당 시험 합격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들의 평균 합격률은 지방 소재 사립대학 졸업자들의 평균 합격률과 최대 37%p 차이를 보인다.

3. 분석 방법

우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이들의 특성을 확인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기간과 방식 등을 검토해본다. 또한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이들의 특성을 살펴본다. 먼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2007GOMS부터 2014GOMS까지 총 8개년에 걸쳐 수집된 GOMS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 대학생들의 공무원 시험 준비 현황 및 노동 시장 전반의 흐름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다. 공무원 시험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고조된 경쟁은 응시자들의 평균 시험 준비 기간과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비용의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수험 기간과 더불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 아래 합격을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출신 가구의 경제력의 차이가 응시자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작용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집단별로 선택하는 준비 수단과 준비 기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학교 유형별 합격률과 준비 기간 및 사용 수단의 연도별 차이를 비교하며 출신 대학의 위세와 개인의 합격 가능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과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결정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프로빗 분석을 실시한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 여부다. 응답자의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결정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개인의 인적 특성과 대학 입학 당시 월평균 소득 및 부모의 학력수준 변인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모형의 준거집단은 지방에 위치한 사립대학에서 인문계열 전공자로 졸업한 남성으로 대학 입학 당시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 부모의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는 9급 공무원 시험 경험자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여 해당 시험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그룹에 속한 11개 대학 졸업자들 중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중하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을 준비하던 기존의 준비생들의 합격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9급 공무원 시험 경험자 중 해당 시험을 통과한 경우 1, 불합격한 경우 0을 갖는 종속 변수를 사용하여 프로빗 모형을 추정한다. 시험 관련 변인으로 월평균 준비 비용, 최초 준비 시기, 준비 기간 변수를 반영한다. 모형의 준거집단은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남성으로서 지방 소재 사립대학에서 인문계열을 전공하고, 최초 시험 시작 시기는 출신 대학 입학 이전으로 6개월 이하의 시험 기간을 경험한 응답자로 설정하였다.

IV. 분석 결과

GOMS를 사용하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2013GOMS에 해당)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연도별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대학 졸업자의 비중은 감소하다가 2014년 이후 반등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9급 공무원에 한정하여 살펴보아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해당 추이를 [그림 2]에 정리하였다. 이는 200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국가공무원 선발 인원 변동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연도별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자 비중(%)

[그림 2] 전체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자 중 9급 준비 비중(%)

<표 2>는 응답자의 출신 대학과 연도별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현황을 보여준다. <표 2>를 통해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인원의 증가 현상은 상대적으로 대학의 위세가 높은 B그룹과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들 가운데서 더욱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개 대학이 포함된 B그룹 대학의 졸업자의 경우 2010GOMS에서 전체 공무원 준비 인원 중 12.6%가 9급 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2014GOMS에서는 약 2.8배 가까이 증가한 35.1%에 이른다. B그룹에 속한 대학들 중 6개 대학을 묶은 A그룹에 한정하여 살펴볼 경우 해당 수치는 동일 기간 8.4%에서 2.1배 증가한 17.9%에 달했다.

<표 2>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현황 - 출신 대학 그룹별

특히 모든 조사에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던 A그룹에 속한 최상위권 3개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들의 증가 추이가 두드러진다. 2007GOMS부터 2012GOMS까지 A그룹에 속한 3개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들의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자의 비중은 0.4%로 동일한 조사의 전체 평균인 8.5%에 비해 매우 낮다. 하지만 2014GOMS에서 조사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의 경우 1.2% 이상의 졸업생들이 9급 시

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으며, 인문·사회계열 전공 졸업생의 경우 전체의 1.8%가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개 대학으로 구성된 B그룹의 인문·사회계열 전공 졸업생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수치가 최근 7년간 최고치인¹⁾ 4.5%에 육박했다. 이를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명문대 출신의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증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 열풍으로 응시자들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합격을 위해 시험 준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수험생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배경의 차이가 준비 시험 준비 과정의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합격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합격자들의 준비 기간, 준비 비용, 준비 방법을 <표 3>에서 살펴보고 있다.

먼저 사회경제적 배경과 출신 학교 유형에 따라 9급 시험 준비 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험 준비를 위해 선택한 1순위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통해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방법이 출신 학교 유형과 입학 당시 월평균 소득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출신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B그룹에서는 혼자 공부를, 지방에 소재한 사립대학의 경우 학원 수강을 1순위 준비 방법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학 입학 당시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시험 준비 방법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학원 수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학원 수강은 52.6%, 인터넷 강의 25%, ‘혼자 공부’는 19.3%로 조사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입학 당시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항목들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높은 학원 수강은 36.1%,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혼자 공부’는 28.6%, 인터넷 강의는 32.5%으로 나타났다. 두 소득 집단간 학원 수강 항목은 16.6%p, 혼자 공부 항목의 경우 9.4%p에 달하는 응답 격차가 확인되는데, 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 당시 선택하는 준비 수단의 차이가 개인의 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님을 보여준다.

<표 3> 9급 공무원 시험 1순위 준비 방법

다음으로 합격자들의 평균 준비기간을 사회경제적 배경 및 출신 학교 유형별로 살

1) 2.4%(2007GOMS), 3.9%(2008GOMS), 1.5%(2009GOMS), 2.0%(2010GOMS), 2.8%(2011GOMS), 2.3%(2012GOMS), 1.4%(2013GOMS), 4.5%(2014GOMS)

해보았다. 9급 공무원 준비 경험자는 평균적으로 17.3개월을 시험 준비로 보냈고, 이 중 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평균적으로 19.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B그룹에 속하는 대학 졸업자들 중 해당 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평균적으로 15개월을 준비하였고, 이 중 합격생의 준비 기간은 전체 9급 시험 준비 경험자의 평균 준비 기간보다 3.5개월 짧은 15.8개월로 나타난다. 여기서 B그룹으로 분류된 11개 대학 중 6개 대학으로 편성된 A그룹의 소속 대학 졸업생의 경우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은 전체 합격생의 평균 준비 기간보다 5.6개월 짧은 13.7개월로 모든 학교 유형중 가장 짧은 준비 기간을 가진다. 이와 비교하여 서울 소재 대학, 지방에 위치한 국공립 및 사립대학 졸업생 중 합격자들의 평균 준비 기간은 약 19.5개월 소요되는 것과 비교할 때 출신 대학교의 위세가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뿐만 아니라 준비 과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평균 준비 비용은 학교 유형간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나, 입학 당시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²⁾ 전체 표본의 12.6%에 해당하는 입학 당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응답자는 시험 준비 당시 월평균 준비 비용으로 31.6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월평균 가구 소득이 7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경우 48.9만원이었다. 입학 당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시험 준비에 사용한 월평균 지출 비용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³⁾

<표 4>에는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여부와 합격 여부를 살펴보는 두 가지 프로빗 모형의 추정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두 모형에서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졸업 평점, 출신 학교 유형, 전공을 고려하였다.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으로는 부모의 학력과 출신 대학 입학 당시 소속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사용되었으며, 연도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연도 더미 변수를 생성하여 통제하였다.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4>의 첫 번째 열에 수록하였다. 동일한 모형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살펴봐도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모형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산

2) 출신 학교 유형별 평균 공무원 시험 월평균 준비 비용은 B그룹의 경우 36.6만원, 서울 소재 대학 36.5만원, 지방 소재 국공립 대학 34.5만원, 지방 소재 사립대학 37만원이었다.

3) 입학 당시 월평균 소득 응답별 평균 월평균 준비 비용은 200만원 미만인 경우 31.6만원, 200~299만원은 34.3만원, 300~399만원은 35.6만원, 400~499만원은 38.5만원, 500~699만원은 39.2만원, 700만원 이상은 48.9만원이었다.

출하여 종속변수인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여부와 각 설명변수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해당 결과는 <표 4>의 두 번째 열에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 모형은 종속변수가 합격 여부이기 때문에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본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응답자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모형에는 앞서 공무원 시험 준비 여부를 살펴볼 때 고려한 설명 변수에 추가하여 월평균 시험 준비에 사용된 비용, 최초 시험 준비 시기, 준비 기간 변수를 포함시켰다. 9급 공무원 시험 합격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를 해당 시험의 합격 여부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4>의 다섯 번째 열에 정리하였다.

첫 번째 모형의 추정 결과는 성별, 출신 학교의 위세, 전공 계열, 졸업 학점, 연령, 출신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응답자가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는지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해당 시험을 준비할 확률이 높고, 높은 졸업 평점은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가능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

조사 대상자의 전공 계열에 따라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가능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응답자의 전공이 사회, 인문계열에 속할 경우 자연, 공학, 교육, 예체능계열 전공자에 비해 해당 시험을 준비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 이러한 결과는 각 성별 표본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최근 8년간 전공별 9급 공무원 준비 경험자 비율은 사회계열(14.0%), 인문계열 (8.8%), 자연계열(8.7%), 공학계열(5.6%), 교육계열(4.4%), 예체능계열(1.8%) 순이었다. 최근 공개된 2014GOMS 조사에서 인문계열 졸업생의 해당 시험 준비 경험자는 전년도 대비 5.9%p 증가한 12.5%으로 조사되어 최근 8년의 조사에서 처음으로 사회계열 전공자보다 인문계열 졸업생의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자 비중이 높았다. 인문 계열 전공자들의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증가 현상은 상대적으로 타전공에 비해 어문, 순수학문 전공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취업 상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⁴⁾

부모의 학력 및 대학 입학 당시 월평균 소득 변수를 살펴보면 입학 당시 부모의 월평균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응답자가 해당 시험을 준비할 확률이 낮았고, 응답자의 부모가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가능성도 낮다. 특히 입학 당시 가구 소득이 월평균 700만원 이

4)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7.5% 이었던 연간 청년실업률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2013), 9%(2014), 9.2%(2015), 9.8%(2016)에 육박했다.

상에 해당하는 집단은 가구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기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살펴보더라도 일관되게 유지된다. 이러한 결과는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들은 보다 다양한 직업 선택의 폭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단보다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4>의 다섯 번째 열은 9급 공무원 시험 합격 여부를 종속 변수로 설정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해당 모형에서 사용된 각 변인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 추정치는 여섯 번째 열에 수록되어 있다. 출신 학교 유형, 졸업 점, 월평균 준비 비용, 연령이 해당 시험의 합격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다. 특히 A그룹에 속한 대학의 졸업자들이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난 점이 특징적이다. A그룹에 속한 대학 졸업자의 합격 확률은 지방 소재 사립대학 졸업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8%p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위세가 높은 대학 출신일수록 9급 공무원 준비 경향이 낮은 것을 확인한 <표 2>의 결과와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 위세가 높을수록 과거에는 9급 공무원을 상대적으로 작은 인원들이 준비하였으나 최근 이들의 시험 준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학교의 위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소재 대학 졸업자들의 합격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첫 번째 모형의 추정결과와 달리 성별과 부모의 학력 수준과 입학 당시 가구의 월평균 소득 변인으로 측정된 사회경제적 배경은 시험 합격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시험 준비 당시 월평균 준비 비용은 합격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경제적인 여건의 차이는 시험 준비 전략의 차별화를 통해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표 4>에 수록된 추정결과를 통해 공무원 시험의 준비 및 합격 여부가 출신 대학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청년층의 공무원 열풍 현상을 4년제 대학교 졸업자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청년층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을 중심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또 시험에 합격하는 이들의 특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 위세가 높을수록, 대학 입학 당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고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시험을 준비하는 확률은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출신 대학의 위세가 높을수록 9급 공무원 시험 비중은 낮지만, 시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에는 위세가 높은 대학 출신들 중 9급 시험을 준비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시험 준비 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지만, 합격 여부와는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출신 대학 유형은 시험 준비 여부와 최종 합격 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동일한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자라고 하더라도 출신 대학에 따라 합격 확률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학력 실업난으로 대졸자와 명문대 졸업생들의 9급 공무원 시험 참여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지방소재 대학 졸업자들과 고졸 응시생들의 최종 합격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2011GOMS부터는 1차 조사가 실시되고 2년 후 진행되던 추적 조사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2011GOMS부터는 응답자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 차례의 조사만 실시된다는 점에서 대학 졸업 이후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들어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데이터의 한계로 이러한 변화를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졸자들의 증가 추세는 현재 청년층이 마주하고 있는 각박한 취업시장의 분위기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 졸업 이후의 공무원 시험 준비 동기와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의 구축과 이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공무원 시험 시행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졸업 평점을 통해 졸업생들의 능력 차이를 일부 반영하기는 하였지만, 횡단면 자료인 GOMS를 사용해서는 개인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상의 한계를 갖는다. 향후 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청년층의 공무원 시험 준비 및 노동시장 진입 준비 현황에 대한 좀 더 엄밀한 인과관계 분석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된 분석 자료로 사용한 GOMS는 대학 졸업자에 한정된 자료이기에 공무원 시험이 한국 전체 청년 세대에게 지니는 의미와 현실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공무원 시험이 과거에 비해 더욱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이며 다양한 연령층이 진입하는 현상을 고려하여 청년층 일반과 한국 사회 전반으로 관심을 확장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태일. 2011. “대학생의 공무원시험 준비가 취업, 보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12(1): 119-139.
- 박성재·송민수. 2010. “공무원 시험 준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자료집》.
- 주원·오준범. 2017.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2017(6): 1-12.
- 오찬호. 2016.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믿을 건 9급 공무원뿐인 헬조선의 슬픈 자화상》(1판). 위스덤하우스.
- 오호영·김안국·정윤정·이근주. 2005. “공무원 채용 시험이 대학교육,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공무원채용제도 개선방안.” 2005-지정-52.
- 오호영. 2006. “공무원 채용시험의 인적자원개발 효과.” 《노동리뷰》 2006(11월): 29 - 40.
- 이상호. 2015. “고시 준비생의 노동시장 이행과정.” 《2015 고용패널 학술대회》.
- 정근하. 2015. “공무원시험 장수생들의 사회적 연계단절에 관한 연구.” 《문화와 사회》 19: 131 - 167.
- 채창균·김태기. 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2): 89 - 107.

<표 1> 기초 통계치

N=84,733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개인적 특성				
성별(여성)	55.2%			
만 나이	26.5	1.7	18.9	29.9
출신 대학				
A그룹	8.7%			
B-A그룹*	5.0%			
서울 소재 대학	13.5%			
지방 소재 국공립대	22.1%			
지방 소재 사립대	50.7%			
진공				
인문계열	13.9%			
사회계열	23.8%			
교육계열	7.1%			
공학계열	27.8%			
자연계열	16.3%			
예체능계열	11.2%			
출신 대학 입학 당시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2.7%			
200~299만원	22.2%			
300~399만원	25.0%			
400~499만원	18.7%			
500~699만원	12.1%			
700만원 이상	9.4%			
사회경제적 특성				
부모의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58.0%			
전문대 졸업	5.0%			
4년제 대학 졸업	27.7%			
대학원	9.3%			
공무원 시험				
5·7·9급 시험 준비 경험자 비중	10.8%			
5·7·9급 시험 준비 경험자 중 합격자 비중	20.1%			
9급 공무원 시험				
시험 경험자 비중	8.0%			
합격자 비중	21.1%			
월평균 시험 준비 비용 (단위: 만원)	36.1	39.8	0	800
최초 시험 준비 당시 연령	24.0	2.1	17.5	29.9
준비 기간 (단위: 월)*	17.3	13.1	0.9	158.3
최초 시험 시작 시기				
입학 전	0.7%			
재학 중	68.8%			
졸업 후	30.5%			

주: 1) B-A 그룹은 B그룹(11개 대학)에서 A그룹(6개 대학)이 제외된 5개 대학에 해당함.
 2) 준비 기간 변수는 2008GOMS를 제외한 나머지 7개년도 자료를 통해 생성된 변수

<표 2>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현황 - 출신 대학 그룹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B그룹 (11개)	N	184	176	133	167	147	92	107	111	1117
	%	15.8%	21.0%	16.5%	12.6%	17.7%	29.3%	28.0%	35.1%	20.7%
서울 소재 대학 (29개)	N	176	161	118	134	125	99	106	91	1010
	%	58.0%	63.4%	64.4%	63.4%	71.2%	73.7%	81.1%	82.4%	68.1%
지방 소재 국공립대 (30개)	N	395	432	285	362	311	329	270	328	2712
	%	84.6%	84.3%	83.5%	84.2%	81.7%	87.2%	86.3%	84.1%	84.5%
지방 소재 사립대 (129개)	N	786	777	371	579	543	462	359	400	4277
	%	81.0%	83.9%	79.0%	84.8%	85.1%	84.8%	86.6%	89.5%	84.1%
전체	%	71.5%	74.7%	69.3%	72.6%	73.8%	79.3%	78.4%	80.4%	74.7%

주: 1) N: 5, 7,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자 수
 2) %: 전체 공무원(5,7,9급) 시험 준비 경험자 중 9급 비중
 3) 자료: 2007GOMS~2014GOMS

<표 3> 9급 공무원 시험 1순위 준비 방법

단위: %

	학원수강	인터넷 강의	그룹 스터디	혼자 공부	기타	계	
1. 학교 유형							
B그룹	39.0	29.0	3.9	28.1	0.0	100	
서울 소재 대학	45.8	29.5	1.3	22.1	1.3	100	79.36*** (df=12)
지방 소재 국공립대	37.6	33.6	1.7	25.7	1.4	100	
지방 소재 사립대	47.7	27.0	1.2	22.5	1.6	100	
2. 대학 입학 당시 가구의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6.1	32.5	1.3	28.6	1.5	100	
200~299만원	43.0	28.9	1.0	25.8	1.3	100	
300~399만원	44.4	29.6	1.4	23.3	1.3	100	64.98*** (df=20)
400~499만원	46.9	29.4	2.0	20.2	1.6	100	
500~699만원	46.1	30.6	2.0	19.7	1.7	100	
700만원 이상	52.6	25.2	1.0	19.3	2.0	100	
전체	43.8	29.5	1.5	23.7	1.4	100	

주: 1) 자료: 2007GOMS~2014GOMS

2) 기타: TV 방송, 학교 내 특강, 기타 조사 항목으로 구성

<표 4>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여부 및 합격 여부에 대한 프로빗 분석

종속변수	(1)	(2)	(3)	(4)	(5)	(6)	(7)	(8)
	모형 1: 시험 준비 경험여부 *				모형 2: 시험 합격 여부 *			
	전체	전체-한계효과	남	여	전체	전체-한계효과	남	여
출신 대학 (기준-지방 소재 사립대)								
A그룹	-0.90*** 0.05	-0.06*** 0.00	-0.99*** 0.06	-0.78*** 0.07	0.85*** 0.20	0.28*** 0.08	1.09*** 0.30	0.71* 0.29
B-A 그룹*	-0.49*** 0.04	-0.05*** 0.00	-0.54*** 0.06	-0.43*** 0.05	1.16*** 0.15	0.40*** 0.06	1.01*** 0.27	1.29*** 0.19
4년제 서울 소재	-0.18*** 0.02	-0.02*** 0.00	-0.28*** 0.04	-0.09** 0.03	0.41*** 0.07	0.11*** 0.02	0.38*** 0.12	0.46*** 0.09
지방 소재 국공립대	0.25*** 0.02	0.04*** 0.00	0.23*** 0.02	0.29*** 0.02	0.37*** 0.05	0.10*** 0.01	0.26*** 0.06	0.51*** 0.07
여성	0.25*** 0.02	0.03*** 0.00			-0.12* 0.05	-0.03* 0.02		
졸업 평점 (4.5 만점 기준)	-0.21*** 0.02	-0.03*** 0.00	-0.25*** 0.02	-0.16*** 0.03	0.31*** 0.05	0.09*** 0.02	0.24*** 0.07	0.41*** 0.09
만 나이*	0.06*** 0.01	0.01*** 0.00	0.07*** 0.01	0.05*** 0.01	0.03* 0.01	0.01* 0.00	0.02 0.02	0.04 0.02
전공: 기준-인문계열 사회계열	0.28*** 0.02	0.05*** 0.00	0.26*** 0.03	0.29*** 0.03	0.09 0.07	0.03 0.02	0.01 0.10	0.16 0.09
교육계열	-0.37*** 0.03	-0.04*** 0.00	-0.30*** 0.06	-0.42*** 0.04	0.22 0.12	0.06 0.04	0.11 0.18	0.33* 0.17
공학계열	-0.29*** 0.02	-0.03*** 0.00	-0.33*** 0.03	-0.20*** 0.04	0.07 0.08	0.02 0.02	-0.01 0.11	0.16 0.12
자연계열	-0.07** 0.02	-0.01** 0.00	-0.09* 0.04	-0.07* 0.03	0.00 0.08	0.00 0.02	-0.05 0.12	0.03 0.10
예체능계열	-0.74*** 0.04	-0.06*** 0.00	-0.60*** 0.06	-0.86*** 0.05	-0.14 0.16	-0.04 0.04	-0.06 0.21	-0.42 0.27
출신 대학 입학 당시 부모의 월평균 소득 (기준-200만원 미만)								
200~299만원	-0.05* 0.02	-0.01* 0.00	-0.04 0.03	-0.05 0.04	0.05 0.07	0.01 0.02	0.04 0.09	0.07 0.11
300~399만원	-0.08*** 0.02	-0.01*** 0.00	-0.12*** 0.03	-0.02 0.03	0.16* 0.07	0.05* 0.02	0.10 0.09	0.23* 0.11
400~499만원	-0.11*** 0.02	-0.01*** 0.00	-0.13*** 0.03	-0.07 0.04	0.11 0.07	0.03 0.02	0.11 0.10	0.10 0.12
500~699만원	-0.20*** 0.03	-0.03*** 0.00	-0.22*** 0.04	-0.18*** 0.04	0.13 0.09	0.03 0.03	-0.02 0.13	0.31* 0.13
700만원 이상	-0.37*** 0.03	-0.04*** 0.00	-0.40*** 0.05	-0.34*** 0.05	0.15 0.11	0.04 0.03	0.09 0.16	0.22 0.17
부모의 학력수준 (기준-고등학교 이하)								
전문대	-0.03 0.03	-0.00 0.00	-0.03 0.05	-0.03 0.04	-0.11 0.10	-0.03 0.03	0.02 0.13	-0.27 0.14
4년제 대학	-0.08*** 0.02	-0.01*** 0.00	-0.08*** 0.02	-0.09*** 0.02	-0.07 0.05	-0.02 0.01	-0.08 0.08	-0.04 0.08
대학원	-0.12*** 0.03	-0.01*** 0.00	-0.05 0.04	-0.20*** 0.04	-0.15 0.10	-0.04 0.02	-0.27* 0.14	-0.02 0.14
월평균 시험 준비 비용(단위: 10만원)					0.02*** 0.00	0.01*** 0.00	0.02*** 0.01	0.01* 0.01
시험 최초 준비 시기 (기준: 재학 중)								
입학 전					-0.11 0.29	-0.03 0.08	-0.29 0.44	0.03 0.38
졸업 후					-0.45*** 0.06	-0.12*** 0.01	-0.49*** 0.08	-0.40*** 0.09
준비 기간 (기준: 6개월 이하)								
7~12개월					0.14 0.08	0.03 0.02	0.19 0.11	0.10 0.12
13~18개월					0.35*** 0.08	0.09*** 0.02	0.42*** 0.11	0.27* 0.11
19~24개월					0.20* 0.08	0.05* 0.02	0.22* 0.11	0.17 0.12
25~30개월					0.19* 0.10	0.05* 0.02	0.22 0.13	0.14 0.14
30개월 초과					0.45*** 0.09	0.13*** 0.03	0.38** 0.13	0.55*** 0.13
상수항	-1.86*** 0.18		-1.89*** 0.25	-1.60*** 0.25	-3.27*** 0.43		-2.74*** 0.55	-4.09*** 0.65
N		78577	43703	34874		4816	2455	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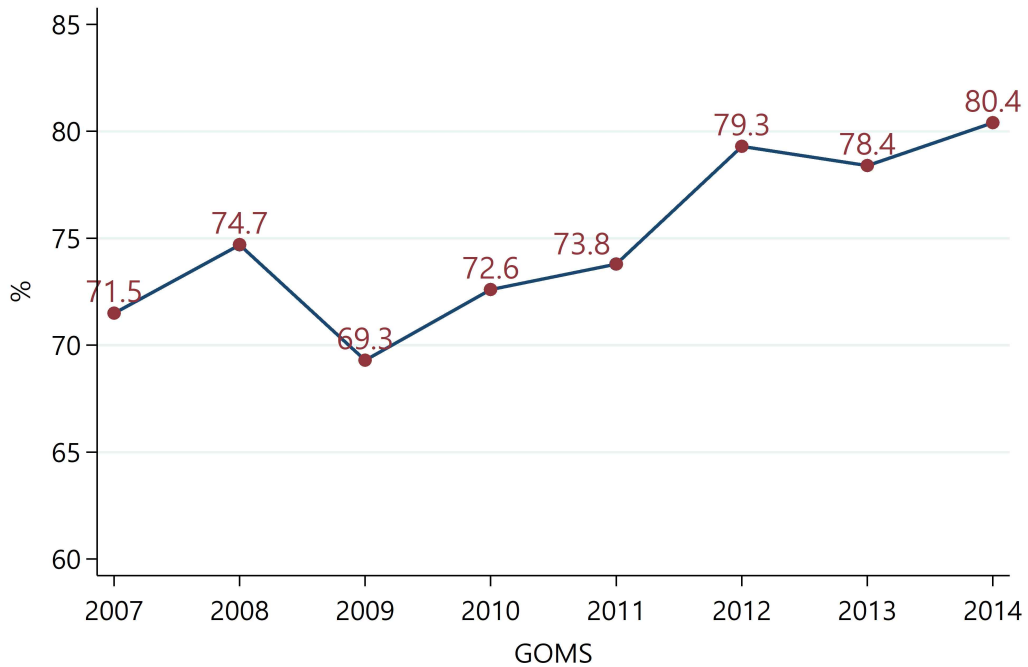
- 주: 1) 각각의 분석에는 연도 더미 변수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 2) *: 10%, **: 5%, ***: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함
- 3) B-A 그룹은 B그룹(11개 대학)에서 A그룹(6개 대학)이 제외된 5개 대학에 해당함.
- 4) 만 나이: 모형 1에서는 조사시점 당시 연령, 모형 2에서는 최초 9급 시험 준비 당시 연령을 의미함.
- 5) 첫 번째 모형은 2007GOMS~2014GOMS를, 두 번째 모형은 2008GOMS를 제외한 나머지 7개년도 자료를 통해 추정함.

<그림 1> 연도별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자 비중(%)



* 주: 1) 전체 응답자 중 공무원 시험(5·7·9급)을 1회 이상 준비한 경험이 있는 이들의 비중
 2) 자료: 2007GOMS~2014GOMS

<그림 2> 전체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자 중 9급 준비 비중(%)



* 주: 1) 자료: 2007GOMS~2014GOMS